

영암물 가입자, 3만에서 80만으로 늘릴 기회 잡는다

영암군, 남도장터와 연합시스템 업무협약... 예산 확보, 공격적 마케팅 예고

영암군 온라인 농특산물 판매처 '영암물' 가입자를 올해 1월 현재 3만명에서 80만명 수준으로 크게 늘릴 기회가 열렸다. 영암군이 지난달 28일 전남도청에서 전라남도, 남도장터, 고흥·완도군과 '남도장터-시·군물 연합시스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영암물 등 3개 군의 온라인 농특산물 판매장의 주문·결제·정산·회원 관리 등 핵심 기능을 전남 온라인 농특산물 판매장 '남도장터'의 관리 시스템에 통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영암물 등 지역 브랜드와 운영 독립성은 유지하면서 관리 시스템만 통합하는 방식이어서 각 지역 특성을 살린 마케팅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협약에 따른 연합시스템으로 영암물 가입자들은 더 안전하고 강화된 보안 체계에서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게 됐다. 영암군과 영암물 입점업체는 남도장터 가입자 80만명에게 농특산품을 홍보할 길이 열렸다. 남도장터 가입자가 '개인정보제공 동의' 등 간단한 절차만 밟으면 영암물 가입자로도 등록될 수 있어서다. 영암군은 협약을 기회 삼아 '개인 동의 이벤트' '추가 포인트 적립' '3개 군 공동 특판' 등 공격적 마케팅으로 영암물 가입자를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라이브커머스를 활용한 판매 지원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소통 강화, 매출 증진 등 운영 다각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영암군은 영암군의회에 영암물 가입자 늘리기의 긍정적 효과를 설명하고, 홍보 이벤트 등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영암군의회에 영암물 가입자 배가 기회를 설명하고, 홍보 이벤트 등 관련 예산 책정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승준 영암군 유통산업과장은 "남도장터 통합 시스템 참여로 영암물 가입자를 대폭 늘리고, 영암물 매출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전남 시·군과 협력 판매로 영암 농특산물이 전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사랑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전남 구례군은 전문농업 인력 양성을 위해 '제18기 구례군 농업인대학 소득작목반' 교육생을 오는 2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득작목반 교육은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지역특화작목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으로, 작목별 재배기술 향상과 안정적 소득 창출을 목표로 3월부터 10월까지 총 23회 진행된다.

구례군, 제18기 농업인대학 교육생 모집

교육 내용은 구례 주요 작목인 매실, 두릅, 고사리, 축부재이, 블루베리, 사인머스켓 등 작목별 재배기술 교육과 토양관리, 미생물의 이해 등 농업인이 알아야 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편성 운영할 계획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지역 특성에 맞는 소득작목 육성은 농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며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적 요소"라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질적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육 대상은 구례군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영농을 희망하는 예비 농업인이며, 전체 교육시간의 75% 이상 출석 시 수료 자격이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780-2079)에서 문의하면 된다. 구례/한정호 기자

순천시, RE100 반도체 자문단 위촉

순천시가 지난 2일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에 대해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자문위원 8명을 위촉하고, 육성 전략 고도화 및 유치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이번 자문위원 위촉은 반도체 산업 특성상 전력·용수·입지·재생에너지·환경 등의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만큼, 산업 현장과 정책을 아우르는 시각을 가진 분야별 전문가의 견해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위촉된 자문위원은 대학·연구기관·시민사회·지식재산 분야 등 각계 저명한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위원은 권석준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준이 기후생태연대 대표, 임동건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이순형 동산대학교 교수, 맹종선 광주·전남 반도체공동연구소 교수, 이지민 순천대학교 교수, 조성은 순천대학교 교수, 천영준 비즈앤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다. 위원들은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논리 자문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대응 방안 ▲중앙부처나 관계기관 협의 지원 등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를 위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순천시는 위원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논리를 한층 고도화하여 반도체 국가산단 최적지로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순천시 여건에 대해 장시간에 걸쳐 노관규 순천시장과 기탄없이 의견을 나누면서 순천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순형 자문위원은 "전남 동부권 양질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고 광양항·여수공항 등 물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반도체 국가산단의 최적지 중 한 곳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권석준 자문위원은 "반도체 산업의 핵심 인력들이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정주여건은 교육환경으로 순천시는 이미 국가산단 배후도시에 국제학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신대외 국인 교육기관 부지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좋은 여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순천/정성인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카메라 뉴스



곡성군, 전 군민 무료버스 시행 후 생활 이동 변화

전남 곡성군이 2026년 1월 1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농어촌버스 무료화를 시행하고 있다. 무료버스 시행 약 한 달이 지난 현재, 병원·시장·통학 등 생활 이동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먼 지역에서 읍내로 이어지는 방문도 증가하는 등 주민 체감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가 없는 어르신과 먼 단위 거주 주민, 청소년 등에게 버스는 주요 이동 수단으로, 무료버스 시행을 통해 의료·문화·행정서비스 접근성도 함께 개선되고 있다. 일부 어르신들은 무료버스를 이용해 읍내나 인근 마을을 찾는 등 일상 외출이 늘었다고 전했다. 또한, 전통시장과 상권을 찾는 생활형 방문이 늘어나는 등 지역 상권 이용도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다. 곡성/이정수 기자



무안군, 설 명절 맞아 온기 나눔 이어져

무안군(군수 김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 곳곳에서 온기를 전하는 이웃사랑 나눔 활동이 이어지며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무안군청에서 열린 기탁식에서는 ▲해제면 김공장 카페 담미소(대표 조은경)가 470만 원 상당의 김 세트, ▲포미아구썬 오릉점(대표 노승찬)과 ▲일로음 이장협의회(회장 이점복)가 500만 원 상당의 반건조 민어를 각각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설 명절을 앞두고 경로당 이용 어르신과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등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된 물품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대상자들에게 나눔의 정과 함께 전달될 예정이다. /무안군 제공



장흥군, 1:1 맞춤형 운동으로 군민 건강 지킨다

장흥군은 군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1:1 개인 맞춤형 건강증진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플러스 체력단련실을 본격 가동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기초체력 검사와 건강상담을 통해 개인별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프로그램은 연간 총 120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상반기 60명과 하반기 60명으로 나누어 모집한다.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구분해 운영되며, 참여는 연 1회로 제한된다. /장흥군 제공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